

녹색은 물결

통권 272

환경을 생각하는
첫번째 실천, 환경운동연합
회원을 권해 주세요

5 2022



석탄발전이후 소형모듈원자로(SMR)말고 정의로운 전환 약속하라!

지난 4월 22일 지구의날을 맞아 석탄발전소 지역의 환경·기후 운동 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에코두레생활협동조합 11주년 기념행사
• EM세탁비누 2개 증정
• 23쪽 참고



지구의 날 맞아 '걷고·줍고·심고·모으고'



"SMR로 석탄화력발전 대체 안돼"...



체르노빌 핵사고 36주년 전국 공동행동

- ▶ 발행일 2022. 5. 10.
- ▶ 발행인 손창원, 송영주, 황성렬
- ▶ 편집인 최오상
- ▶ 편집위원 팽말숙, 김정진, 이동준, 유형민, 임아연, 박은정, 조순형
- ▶ 당진시 무수동옛길32 태영빌딩 204호
- ▶ 전 화/ 355-7661
- ▶ 전 송/ 355-0443
- ▶ E-mail/ dangjin@kfem.or.kr
- ▶ http://dangjin.kfem.or.kr

- 3 이달의 시
|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 김남주
- 4 지역환경초점1
| 지구의 날 맞아 '걷고·줍고·심고·모으고'
- 6 지역환경초점2
| "SMR로 석탄화력발전 대체 안돼"...
- 7 지역환경초점3
| 한전, 당진시 상대로 집행정지 소송 제기
- 8 지역환경초점4
| 희비 엇갈린 휴양림과 당진버스공영제
- 9 지역환경초점5
| 체르노빌 핵사고 36주년 전국 공동행동
- 10 지역환경단신1
| 삽교호수계 충남 6곳 중 3곳 오염총량관리 안한다
- 11 전국환경초점1
| "윤석열 정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부터 중단하라"
- 12 전국환경초점2
| '기습기살균제 1774번째 죽음
- 13 전국환경초점3
| 환경단체 "고리2호기 수명 연장 시도 중단하라"
- 14 기후위기는 나의 위기
| 기후가 변하면 어떤일이 일어날까요?
- 16 석탄씨를 구해줘
| 20화 활동가라면 기자회견을

- 18 4월 활동소식
- 20 4월 살림살이
- 21 5월 주요사업 계획
- 22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 23 광고
- 24 광고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김남주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오월은 바람처럼 그렇게 서정적으로 오지도 않았고
 오월은 풀잎처럼 그렇게 서정적으로 눕지도 않았다

오월은 왔다 피문은 야수의 발톱과 함께
 오월은 왔다 피에 주린 미친개의 이빨과 함께
 오월은 왔다 아이 반 어머니의 배를 가르느 대검의 병사와 함께
 오월은 왔다 총알처럼 튀어나온 아이들의 눈동자를 파먹고
 오월은 왔다 자유의 숨통을 갈아뭇거는 미제 탱크와 함께 왔다

노래하지 말아라 오월을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은 바람처럼 그렇게 서정적으로 오지도 않았고
 오월은 풀잎처럼 그렇게 서정적으로 눕지도 않았다

-종략-

노래하지 말아라 오월을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바람은 야수의 발톱에는 어울리지 않는 시의 어법이다
 노래하지 말아라 오월을 바람에 일어서는 풀잎으로
 풀잎은 학살에 저항하는 피의 전투에는 어울리지 않는 시의 어법이다
 피의 학살과 무기의 저항 그 사이에는
 서정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자력도 없다
 적어도 적어도 광주 1980년 오월의 거리에는!

김남주(1946년 10월 16일 ~ 1994년 2월 13일)는 시인, 시민·사회 운동가이다. 유신을 반대하는 언론인 「합성」(뒤에 「고발」로 개칭)을 발간하였고 인혁당 사건, 남민전 사건으로 투옥되었으며, 민청학련 사건의 관련자로 지목되어 고초를 겪었다. 1980년 남민전 사건 조직원으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수감되었다가 19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석방되었다. 그는 '시인'이 아닌 '전사'라고 자칭하기도 했다.

지구의 날 맞아 '걷고·줍고·심고·모으고'

당진환경운동연합 4월 한달간 지구의 날 기념 행사 개최



참가자들이 당진천을 걷는 모습



벚꽃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모습



참가자들이 공기정화식물 심는 모습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지구의 날을 맞아 4월 한 달 동안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지구의 날을 기념했다.

벚꽃길 걷고, 쓰레기 줍고, 공기정화식물 심고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 날을 맞아 4월 16일(토)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1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당진천 주변에서 지구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어름수변공원에서 출발해 대덕동 소송교까지 왕복 5km에 이르는 당진천변을 걸

으며 쓰레기를 줍고 돌아온 후에는 공기정화식물을 심는 순서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어름수변공원에 모여 함께 참가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집계와 쓰레기 봉투 등 청소도구를 받아 벚꽃이 활짝 핀 당진천변을 걸으며 봄 꽃길의 정취를 만끽하며 당진천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

환경정화활동을 마치고 어름수변공원으로 돌아온 참가자들은 청소도구와 모아온 쓰레기를 반납한 후 커피나무 등 6종의 공기정화식물 중

마음에 드는 식물을 골라 나눠 준 토분에 심어 집으로 돌아갔다.

아이스팩, 우유팩 모으고

지구의 날을 맞아 당진환경운동연합과 에코생협 당진점이 버려지는 폐자원을 모아 재활용하는 자원순환을 위해 아이스팩과 종이팩을 모으는 행사를 진행했다.

‘모으고’ 행사는 당진시 자원순환과의 협조 속에 4월 1일부터 지구의 날인 4월 22일까지 진행됐으며 행사기간 동안 5백여 개의 아이스팩과 40kg이 넘는 우유팩이 모여져 재활용을 위해 보내졌다.

[글: 사무국]



참가자들이 공기정화식물 심는 모습



아이스팩과 우유팩 모으기 행사

“SMR로 석탄화력발전 대체 안돼”...

지구의 날에 '기후 정의' 외친 기후환경단체들



석탄발전소 지역의 환경·기후 운동 단체 회원들이 22일 서울 대통령직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 관계자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원전 확대 행보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기후·환경 단체들이 핵발전은 기후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탈핵부산시민연대 등 석탄발전·핵발전 지역의 기후·환경단체를 포함한 9개 단체는 지구의 날인 22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형모듈원자로(SMR)·핵 발전 말고 정의로운 전환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SMR을 충남 등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지으면 된다는 윤 당선인의 대선 캠프 관계자 발언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윤 당선인 캠프 출신 인사에게서 나온 발언이 특정 지역에 희생을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의 선거 캠프 원자력·에너지정책분과장이었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원자력정책센터장)는 지난달 1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충남 등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던 지역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건설하면 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충남, 경남, 인천 등 지역의 주민들은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온배수와 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다. 박옥희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에너지 자립도 270%인 인천 시민들은 온배수, 석탄재, 미세먼지, 초고압 송전선로의 피해를 끌어안고 살아왔다”며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곳에 기존 전력망 용이성 운운하며 희생을 강요하는 SMR을 짓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략)

기후·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단체는 “탈탄소 에너지 전환의 과정은 자치와 분권을 근간으로 민주적이고 정의로워야 한다”며 “석탄발전 지역의 미래는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세운 계획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모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략)

[출처: 경향신문 일부 발췌]

한전, 당진시 상대로 집행정지 소송 제기

법원,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인용



북당진-신탄정 송전선로 37번 철탁 부지에서 철탁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우강면 일대의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지난 달 30일 당진시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공사중지를 통보했다. 이를 두고 한전에서는 당진시를 상대로 공사중지명령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한전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북당진-신탄정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우강면 주민들이 우강면 부장리와 신촌리, 소들섬을 지나는 구간에 대한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해왔다.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집회를 하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하고, 당진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며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등 사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당진시는 한전에 겨울철 철새 도래 기간인 11월부터 3월까지 공사중지를 명령했고, 최근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누락 등을 문제 삼아 다시 한 번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한전 측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사중지명령에 불복,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진시에서는 하승수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공동대표 김영란·유이계·이덕기)과 긴밀히 협조하며 대응해왔다.

지난 1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심문이 진행된 이후 한전과 당진시 측이 각각 6차례에 걸쳐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불과 5일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결국 법원에서는 한전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당진시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한전)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분명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중략)

[출처: 당진시대 일부 발췌]

희비 엇갈린 휴양림과 당진버스공영제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을 의결하는 모습

당진시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산림녹지과의 산림휴양시설 확충과 교통과의 버스공영제 사업의 예산확보에 희비가 엇갈렸다.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는 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9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1조 531억 7301만 3000원 중에 교통과의 시내버스 공영제와 관련된 4건의 예산 26억 3380만 9000원만 삭감 의결했다. 결국, 본회의 직전까지 삭감이 예고됐던 산림녹지과의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임야 집단매입은 최종 전액 통과된 만큼 당진시의 주요 현안사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중략)

당진시의회는 지난해 예산 전액 삭감했던 교통과의 버스공영제 예산을 올해에는 일부 삭감해 반영시켰다. 시는 1차 추경안에 107억 9864만 5000원을 올렸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당진여객으로부터 매입을 확답받지 않았고, 운영비는 향후 확보해도 된다는 이유에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 3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

화 이벤트 200만 원 △공영버스 운영비(인건비) 19억 466만 4000원 △공영버스 차량운영비 7억 2414만 5000원 등 총 26억 3380만 9000원을 감액했다.

이처럼 일부 예산을 확보한 당진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당진여객과 논의를 거쳐 빠르게 버스 공영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진시 교통과 관계자는 “당진여객과 정식으로 협상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의원님들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예산도 없이 무조건 여객과 협상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면서 “그동안 감정평가 결과가 발표되고 당진여객에서도 자체적으로 고민할 시간은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버스공영제 실현에서 예산 확보라는 첫 삽을 드디어 떴다. 이제는 당진여객에서도 당진시를 신뢰하고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며 “예산이 확보된 만큼 당진여객과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버스공영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당진신문]

체르노빌 핵사고 36주년 전국 공동행동

당진환경연합, 구터미널 로터리에서 피켓팅 진행



지난 4월 26일 전국 공동행동으로 당진환경운동연합도 구터미널 로터리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4월 26일 체르노빌 핵사고 36주년을 맞아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국내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를 촉구하는 동시에 다발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녹색연합 등이 함께하는 탈핵시민행동은 서울 종로구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지를 촉구했다.

서울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고리2호기 폐쇄 부산시민행동, 전북환경운동연합,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경남시민행동 등 전국 각지에서 기

사회견, 피켓팅 등 공동행동이 동시에 진행됐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에 맞춰 구터미널 로터리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했다.

체르노빌 핵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채 암을 비롯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지금도 산불과 같은 재해가 닥치면 방사능 낙진이 대기 중에 떠다닌다. 여전히 체르노빌 핵발전 사고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글: 사무국]

삼교호수계 충남 6곳 중 3곳 오염총량관리 안한다

천안·아산·당진만 총량관리제 시행
나머지 군 개발 제한 등 이유로 안해
전문가들 관리지역 확대 필요성 제기

충남 서북부권에 농업·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삼교호수계 6개 시·군 중 3곳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하지 않고 있어 수질 관리 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삼교호 수계 천안·아산·당진·홍성·예산·청양 등 6개 시·군 중 천안·아산·당진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나머지 3개 시·군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하지만 홍성·예산·청양 등 3개 시·군은 삼교호 수계의 수질오염 총량관리가 의무사항이 아닌 데다 업무 부담과 개발 제한에 따른 불편 등을 이유로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청양군 관계자는 "금강 수계는 4대강으로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삼교호 수계는 제도 시행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시행하게 되면 인근 개발이 제한되고 개발할 수 있는 범위도 정해져서 낙후 지역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군 개발을 위해)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군 관계자도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의무사항으로 추진되면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되지 않는 곳이 전체 삼교호수계 지역 중 70%에 달한다면서 관리지역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충남연구원 물환경연구센터 관계자는 "삼교호 내 수질 완화 대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수로 유입되는 물이 깨끗해야 호수가 깨끗해질 수 있다"며 "삼교호로 유입되는 하천 유역의 지자체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삼교호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지역 확대를) 논의 중"이라며 총량관리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출처: 충청투데이]

“윤석열 정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부터 중단하라”

인수위 앞 기자회견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은 신규 석탄 중단부터”



4월 21일 오전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탈석탄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예고에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에는 미온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차기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 직면했다. 4월 21일 오전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 삼척석탄화력발전건설 반대투쟁위원회,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강릉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통인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 강릉안인석탄화력발전소(사업자 강릉에코파워) 2기와 삼척석탄화력발전소(사업자 삼척블루파워) 2기의 건설 중단과 진보된 탈석탄 정책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조은아 활동가는 “2027년이면 한국은 태양광, 육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석탄보다 저렴해지는 상태에 도달한다”라며 “신규 석탄의 건설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세계 추세에도 역행할뿐더러,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만큼의 재원을 화

석연료에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연합 이다예 활동가는 “윤석열 당선인은 기후위기의 해결책으로 원전만 내세우고 있으나 기후위기의 원인은 화석연료”라며 “4기에 달하는 초대형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문제를 방관한다면 윤 정부가 말하는 기후위기 대응책은 그린워싱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략)

석탄발전소가 배출할 극심한 대기오염물질이 수천 명의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키며, 막대한 온실가스로 기후 목표 달성을 억제하고 기후위기를 더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석탄에 대한 환경적 우려가 크다. 최근 울진, 삼척, 강릉 등 동해안 산불이 200시간 넘게 이어지며 큰 피해를 겪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봄철 가뭄이 산불의 규모, 지속 기간, 빈도를 더 악화한다. 강원도의 산림과 지역사회 보존을 위해서 석탄발전소 건설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중략)

[출처: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가습기살균제’ 1774번째 죽음 전 배구선수 안은주씨 3일 오전 0시40분 별세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3일 낮 옥시가 입주한 서울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1774번째 희생자 안씨를 추모하고 옥시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배구선수 출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안은주씨가 3일 0시 40분 세상을 떠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은 이날 옥시가 입주한 서울국제금융센터(IFC)에서 안씨를 추모하고 옥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씨는 실업팀에서 배구선수로 활동했고 밀양 초등학교와 생활체육 배구코치로 활동할 정도로 건강했으나,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옥시썩썩 뉴 가습기당번’을 사용하다 쓰러졌다. 그 뒤로 12년 동안 투병생활을 이어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피해자단체와 가해기업 간의 협의조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조정안이 나와 최소한의 피해지원을 기대했지만 옥시와 애경이 거부하면서 물거품이 된 상황에서 가습기살균제 중증피해자의 한 명인 안은주

씨가 사망해 너무나 안타깝다”며 옥시를 비판했다.

지난 4월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론화 11년 만에 기업과 피해자 간 조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조정 과정에 참여한 기업들은 조정위 쪽에 조정안 수용 여부를 전달했다.

그러나 분담금 비중이 가장 높은 옥시레킷벤 키저와 애경산업이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최병렬씨는 “옥시는 터무니없는 조정위원회의 피해 조정안도 거부하고 있다. 조정안이 지연되면서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고통 속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면서 “옥시와 애경이 계속해서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매운동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출처:한겨레신문]

환경단체 "고리2호기 수명 연장 시도 중단하라"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와 부산환경운동연합이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원전 2호기 수명 연장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와 부산환경운동연합 소속 활동가 등이 14일 오후 부산시 연제구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울산·경남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리원전 2호기 수명 연장과 영구 핵폐기장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7년 6월 18일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가 최종 확정된 역사적인 날이다"며 "하지만 부울경 시민들의 탈핵에 대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고리2호기의 주기적 안정성 평가서를 포함한 '계속 운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하는 등 수명연장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탈원전 폐기 공약을 내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이후 산업부는 원전의 수명연장 건을 업무보고 했고, 인수위원회는 탄소중립에 반하는 원전추진을 선언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은 영구정지 또는 폐로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백번을 양보해 수명을 연장하더라도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특히 경제성과 안전성이 모두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중대사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실시 및 주민동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수명연장은 시도조차 될 수 없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를 엄중하게 바라보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출처 : 뉴시스]

기후가 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해수면 상승의 가장 큰 원인!

해수 온도 상승으로 열팽창

육지 얼음이 녹아
바다로 유입

▶ 1993-2019년 전지구 해수면높이 변화



☞ 지구가 정말 더워지고 있나요? - 사막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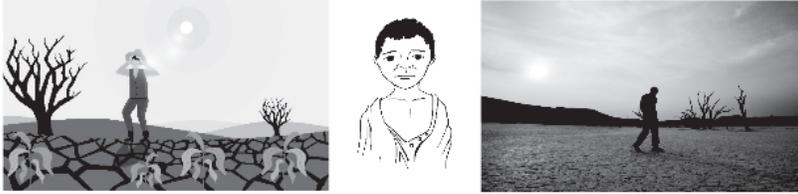
땅이 바싹
말랐어요.

모래폭풍이
불어요~!



최근 가을, 겨울철에도 황사 발생!

☞ 전 지구에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 - 영양실조 환자수(2015~2018)



가뭄 홍수와 같은 극한 기후 현상은 최근 전세계 심각한 식량위기와 기사증가를 초래!

☞ 전 지구에서 어떤 극한 기후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 2019년 1월 오스트리아 폭설



▶ 2019년 3월 모잠비크 사이클론 '이다이'



▶ 2019년 6월 스페인 폭염



▶ 2019년 10월 일본 태풍 '하기비스'



▶ 2019년 11월 이탈리아 홍수



▶ 2019년 12월 호주 폭염 및 산불

전 세계 이상기후 발생으로 인한 피해 증가

[출처 :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석탄씨를 구해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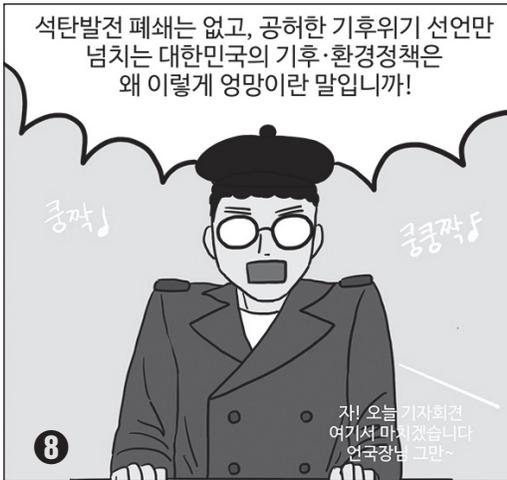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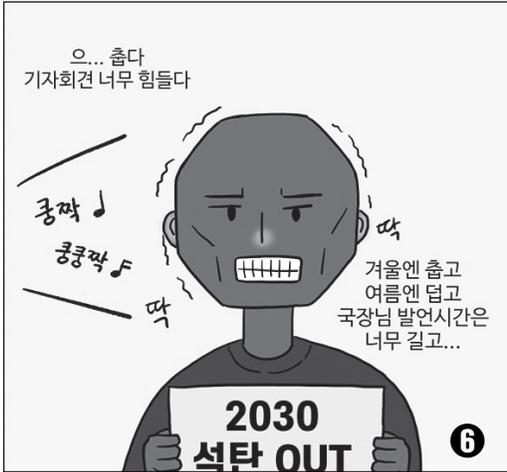
제 20화 활동가라면 기자회견을



<석탄씨를 구해줘>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 및 에너지 인식 대전환을 위해 제작된 환경운동연합 브랜드 웹툰입니다.

석탄씨를 구해줘

제 2화 활동가라면 기자회견을



<작가의 말>

은아 : 신난건 언국장님이 아니라 글작가신듯
 석탄 : 나훈아 드립도 벌써 두번째...
 우현 : 아무도 찾지않는 바람부는 언덕에 이름모를 잡초야~♪
 ※실제 기자회견이 항상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석탄씨는 누구?
 이름 : William, F. Coal (김석탄)
 나이 : 형성 후 1억 년, 채광 후 3년
 고향 : 호주
 꿈 : 매장
 직업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우유팩 아이스팩 모아요

지난 4월 1일~22일까지 지구의날을 맞아 한달동안 지구의달로 정하고 에코생협 당진점에 아이스팩과 우유팩을 모았습니다.



4월 운영위원회 회의

지난 4월 5일 4월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줌회의와 대면회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지구의날 기념 걷고, 줍고, 심고 행사

4월 16일 당진시어름수변공원에서 지구의날 기념 행사로 130여명의 당진시민들과 함께 벚꽃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공기정화식물을 심어가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진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4월 12일 당진시청에서 당진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석탄발전지역 SMR건설 발원 규탄 기자회견

지난 4월 22일 석탄발전소 지역의 환경·기후 운동 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 앞에서 SMR 건설 발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체르노빌 35주기 전국 공 동행동 참가

지난 4월 26일 당진시 구터미널 로터리 앞에서 체르노빌 35주기 전국 공동행동으로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사)당진환경운동연합
2022년 4월 일반회계 수입·지출 결산 보고

(단위: 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	항	목	금액
이월금	전월이월금	26,806,267	인건비	급여	4,540,000
회비	개인회비	5,105,000		퇴직적립금	365,820
	법인회비	70,000		사회보험료	462,410
	계	5,175,000		계	5,368,230
일반후원금	개인회비	236,020	경상비	복리후생비	0
	법인회비	0		세금과과공금	143,500
	계	236,020		소모품비	280,500
사업후원금	사업후원금	0		지급수수료	474,240
	계	0		기타운영비	141,900
단체지원금	단체지원금	0		계	1,040,140
보조금	기타사업	0	사업비	기후에너지사업	60,000
	계	0		생태보전사업	40,000
지원금수입	지원금수입	0		생활환경사업	510,700
	계	0		조직·회원사업	951,530
기타수입	기타수입	0		모금사업	0
	계	0		연대사업	844,600
전입금	전입금	0		기타사업	0
	계	0		계	2,406,830
차입금	차입금	0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비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	0
	계	0		계	0
			이월액	이월액	23,402,087
				계	23,402,087
월수입 총계		5,411,020	월지출 총계		8,815,200
수입 합계		32,217,287	지출 합계		32,217,287

01 일반사업

- ❖ 5/02(월) 15:30 충남연대회의 지방선거 대응 TF 회의 - 온라인
- ❖ 5/03(화) 13:00 환경운동연합 탈석탄그룹 '에너지전환지원법' 워크숍 - 온라인
18:30 5월 운영위원회 회의 - 사무실
- ❖ 5/04(수) 18:30 소형모듈원자로(SMR) 시민 워크숍 - 시청 중회의실
- ❖ 5/06(금) 11:00 에코생협 생활재위원회 회의 - 당진에코생협
14:00 충남도지사 후보 당진시민사회 간담회 - 여기구의원 지역사무실
- ❖ 5/09(월) 17:00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규탄 캠페인 - 구터 로터리
- ❖ 5/12(목) 10:00 소형모듈원자로(SMR) 충남 워크숍 - 내포혁신플랫폼
14:00 환경연합 전국사무국처장단 회의 - 부산
- ❖ 5/13(금) 13:00 충남 정의로운 전환 포럼 - 충남지속협
16:00 공동의장단-민간환경감시센터장 회의 - 사무실
- ❖ 5/16(월) 14:00 당진화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회의 - 당진시청
17:00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규탄 캠페인 - 미정
- ❖ 5/17(화) 19:00 환경연합 지방선거 대응 정책토론회 - 서울
- ❖ 5/18(수) 16:00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 회의 - 온라인
- ❖ 5/21(토) 09:00 2022 1차 '깨끗한 바다, 우리가 바라는 바다' - 대호방조제
- ❖ 5/23(월) 14:00 원동리 부녀회 찾아가는 마을 환경교육 - 원동리 마을회관
17:00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규탄 캠페인 - 미정
- ❖ 5/25(수) 10:00 에코생협 당진점 개장 11주년 행사 - 에코생협 당진점
- ❖ 5/27(금) 14:00 충남도 환경계획 수립 도민참여 워크숍 - 공주 고마센터
- ❖ 5/30(월) 17:00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규탄 캠페인 - 미정
- ❖ 5/31(화) 17:00 공동의장단 회의 - 사무실

02 회의 및 기타일정

- ❖ 사무국 회의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 주부환경지킴이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최현준실용음악학원
- ❖ 소식지 편집위원회 - 5/31(화) 11시30분

03 지역현안

- ❖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 ❖ 석문산단 LNG기지 건설
- ❖ 송산·석문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 ❖ 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송전선로
- ❖ 북당진-신탕정 간 345kV 송전선로

● 새내기 회원

조주희(글로벌 천막, 송악읍)

● 이달회비 납부 회원

가봉현 강남기 강남호 강도연 강병수 강삼욱 강은구 강은식 고락일 고영훈 고재만 고중민 박성심 박영복 구경숙 구미선
 구분갑 구분재 구분찬 구분평 구분현 구승남 권석원 권영석 권중원 김호종 김경희 김경희 김광수 김광운 김광태 김권기
 김기동 김길자 김남조 김남철 김남철 김달식 김대원 김동균 김동길 김동수 김동진 김동철 김동환 김두현 김명구 김명선
 김명용 김명희 김미경 김미성 김민경 김민호 김백신 김병구 김병빈 김보담 김본겸 김봉균 김봉운 김석규 김석래 김신규
 김성훈 김세진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한 김순동 김승수 김신순 김양중 김영민 김영삼 김영자 김영준 김예나 김용준
 김용훈 김원용 김윤각 김윤희 김은주 김은주 김은호 김용열 김용영 김일권 김재성 김재영 김재진 김정곤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진 김종근 김종래 김종범 김주석 김지환 김 진 김진남 김진용 김진호 김철환 김춘이 김필배 김하정
 김현기 김현립 김형기 김형모 김혜선 김혜숙 김호인 김홍장 김홍희 김홍환 나상흠 남청현 노정길 노정민 노창엽 류경자
 류연석 류제민 맹봉재 명형남 문상수 문영미 문영수 문은호 문창모 박경미 박경서 박경연 박경일 박규섭 박근성 박기남
 박기술 박기행 박미상 박미현 박상길 박상준 박성규 박성민 박세진 박순래 박신규 박연신 박영일 박용상 박윤숙 박은자
 박은정 박은희 박이리사 박인순 박정연 박종대 박종연 박종화 박창순 박춘희 박태식 박해규 박현순 박호완 박희경 박희복
 박희정 방승미 방우진 배국희 배병호 백광현 백윤경 백종렬 서동우 서영순 서지현 성낙석 소병희 손강열 손민우 손영기
 손영미 손종선 손창원 손화웅 송노섭 송병언 송수연 송연섭 송영주 송운호 송재한 송창병 송하종 송한결 송형식 신경상
 신동균 신미희 신양웅 신진호 신철석 신현기 신현덕 신현하 심주현 심중섭 안길훈 안동일 안병호 안승환 안영순 안영훈
 안효권 안효신 양근호 양영진 양정만 엇기태 오동원 오윤정 오의환 오추석 오현동 오훈순 우동기 원유영 원종경 유미화
 유 성 유영석 유종준 유현경 유형민 육이창 윤기섭 윤기영 윤도현 윤범용 윤은경 윤인현 윤재무 윤정득 윤주홍 윤형순
 윤혜신 이강선 이경미 이경용 이광선 이규달 이규철 이근주 이기종 이능용 이대우 이동준 이두용 이명자 이미영 이범주
 이병구 이병도 이병천 이보은 이상록 이상문 이상용 이상우 이상일 이새봄 이석규 이선이 이상남 이수현 이순영 이승호
 이영근 이영길 이영미 이영수 이영우 이용석 이원복 이원석 이은화 이인범 이인수 이인숙 이일규 이일순 이장희 이재상
 이재성 이재순 이재화 이재훈 이정환 이정훈 이종관 이종필 이준성 이종호 이종영 이창규 이철재 이충휘 이혜선 이해운
 이현숙 이호경 이 훈 이홍숙 인담교 인만교 인현옥 인호환 임관택 임광빈 임미숙 임수진 임아연 임종광 임종석 장규진
 장덕기 장미경 전경배 전종숙 전향숙 정경채 정광영 정낙구 정덕영 정본환 정봉식 정상수 정선희 정세훈 정영표 정의철
 정종환 정중섭 정찬관 정치웅 조강호 조민형 조상연 조성대 조성준 조성환 조수용 조수현 조순형 조신희 조용재 조재형
 조한영 주영권 지광선 차기능 차일병 차재석 차준국 채종국 천선휘 천혜경 최강부 최기승 최대실 최도현 최병수 최석현
 최성욱 최세호 최연복 최연이 최오상 최완택 최원근 최은진 최인호 최일규 최장열 최재혁 최종길 최종원 최지용 최창용
 최혜인 최효진 팽말숙 허용자 하정미 하정이 한광현 한기홍 한미경 한상무 한상태 한성현 한수미 한수석 한영우 한원희
 한청수 함효진 허인욱 현 민 호상기 호용기 홍기석 홍덕선 홍두표 황성렬 황영호 황푸름 (주)다올건설산업 (주)디에스
 당진시대 당진여객(주) 당진천주교회 별나라어린이집 상록인쇄사 생고뱅이소바코리아(주) 세실리아요양센터 영축농장
 율곡어린이집 정우건설(주) 해송 환경운동연합에코생협

에코두레생협 당진점
개장 11주년 기념 할인행사

환경운동연합 에코생협 당진점이 개장 11주년을 맞아
다양한 할인행사와 함께 생산자 초청 시식코너도
마련합니다. 생일 떡 드시러 오세요.

▶ 날짜 : 2022년 5월 25일(수)

▶ 시간 : 오전10시~저녁9시 까지

1. 우리콩 두부 50% 할인
2. 행복을 품은 유정란 30% 할인
3. 5만원 이상 구입시 마스코바도 500g 증정
4. 품목별 다양한 할인 행사
5. 회원님만을 위한 행운! 앞표지 절취선을 오려오시면 EM세탁비누 2매 증정

** 찾아오는길: 당진시 무수동 2길 20 (문예의전당 주차장 맞은편)

** 문의전화: 에코두레생협 당진점 041-358-7161



“시민과 함께하는 해변 환경 정화 활동”

깨끗한 바다 우리가 바라는 바다

누군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로 바다는 몸살을 앓고 힘들어합니다. 바다를 지키고 깨끗한 지구의 환경을 만드는 행동에 당진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날짜 : 2022년 5월 21일(토) 오전 9시

▶ 장소 : 대호방조제 일원

-9시 문예의전당 주차장 출발, 12시 당진 도착

-일정은 날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봉사시간 3시간 적용됩니다.

-모자와 텀블러를 준비해주세요.

-식사(도시락)와 간식 제공해 드립니다.

-선착순 40명

-참가문의: 당진환경운동연합 041-355-7661

2022년 환경의 날 기념행사

"슬기로운 지구 생활" 재활용 화분 만들기



매년 6월 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이날 만큼은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고, 버려지는 재활용 쓰레기로 화분을 만들어 오시면 예쁜 공기정화식물을 심어 갈 수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날짜 2022년 6월 4일(토) 오전10시~12시까지

장소 남산공원 분수대 광장

참여방법

1. 당진환경운동연합 355-7661 참가 신청을 하세요. (선착순 300명)
2. 분리수거 할 재활용 쓰레기로 화분을 만들어 오세요. (지름 15cm 이상)
3. 당일 오전 10시까지 오시면 다양한 체험행사와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 행사 자원봉사 신청 시 3시간 적용 (9시간~12시 30분)
-우천시 다음날로 연기됩니다.

※이 소식지는 상록인쇄사의 도움을 받아 발행되었습니다.